

『엠마』에 나타난 제인 오스틴의 글쓰기 전략*

이 정 호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 시작하면서

제인 오스틴(Jane Austen, 1775-1817)은 영문학에서 자주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작가로 평가된다. 영문학사에는 많은 기라성 같은 남성 작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작가인 오스틴이 이처럼 훌륭한 작가로 평가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스틴이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훌륭한 작가라는 의견을 개진한 평론가로는 머콜리(Thomas Babington Mauculey, 1800-1859)와 테니슨(Tennyson)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감식안을 가진 문학가들이 있다. 이들과 더불어 그녀의 문학적 우수성을 인정하는 인물로는 그녀의 소설들을 깊이 연구했으며, 또한 그녀의 작품을 편집하기도 한 채프먼(R. W. Chapman)이 있다. 그는 오스틴을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꼽으면서, 『엠마』는 필딩(H. Fielding)이 쓴 『톰 존스』(*Tom Jones*)에 버금가는 훌륭한 소설로 꼽는다. 그는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엠마』의 탁월성은 그 구성에 있어 추종을 불허하는 대칭성에, 기교면에서는 끝없는 매혹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끄럽게 다듬어진 표면 밑으로 흐르는 따뜻한 정감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적인 공감과 따뜻한 정감이 맥박처럼 끊이지 않고 이어지다가는 드물게는—그러나 중요한 때에는—맥박이 높게 뛰면서 우리[독자]의

* “이 연구는 2001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및 간접연구경비에서 지원된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백막도 함께 뛰게 한다.

I find the supremacy of *Emma* in the matchless symmetry of its design, in the endless fascination of its technique, above all in the flow of the blood beneath the smooth polished skin: a flow of human sympathy and charity that beats with a steady pulse, rarely—but more momentarily—quicken to a throb that sets our own veins leaping in unison. (Parrish vii-viii)

위에 인용한 체프먼의 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이 소설의 기교가 보여주는 끝없는 매력”이라고 말한 기교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이같은 형식을 담아내는 내용이다. 오스틴 자신은 이 소설을 가리켜 “나 말고 어느 누구도 별로 좋아 하지 않을 여주인공을 설정하겠다”(I am going to take a heroine who no one but myself will much like, Parrish viii)라고 말한 바 있다. 오스틴은 그녀의 많은 독자들이 『오만과 편견』이나 『맨스필드 파크』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소설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음을 꾀려한 바 있다. 이같은 오스틴 자신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엠마』는 출간된 이후 독자와 비평가들로부터 꾸준한 호평을 받아 왔다. 그러면 이 소설이 이처럼 오랜 동안 호평을 받아 온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설은 체프먼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형식과 내용이 적절히 결합된 작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스틴이 이 소설에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이처럼 잘 매합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오스틴의 글쓰기 전략은 체프먼의 지적처럼 “인간적인 공감”(human sympathy)와 기교를 아주 기술적으로 접합시킨 것이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작가의 생각에 동감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하기도 하면서 독자 자신이 자신의 텍스트 해석을 끊임없이 계속 하는 과정이다. 이같은 독서 과정은 단순히 독자가 작가의 의도만을 수동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읽기를 통해 독자가 작가와 서로 상호주체적인 쌍방향 작용(intersubjective interaction)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같은 상호 주체적인 쌍방향 작용은 독자 반응 이론(reader

response theory)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오스틴의 글쓰기 전략을 좀더 면밀히 살펴 보기 위해서는 이 소설을 독자 반응 이론의 측면에서 살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독자 반응 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우선 살펴 본 후, 『엠마』를 독자 반응 이론의 측면에서 살펴 보기로 하자.

2. 독자 반응 이론의 주요 개념들

독자 반응 이론 (또는 독자 반응 비평)은 독일의 콘스탄츠(Konstanz) 대학에서 수용 미학(Reception Aesthetics)이라는 이름으로 1960-197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던 미학 이론에 그 근원이 있다. 수용 미학은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의 현상학에 기초한 미학 이론으로, 이 이론은 1980년대 초에 들어서야 영어권에 소개되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수용 미학을 활발하게 연구한 학자들을 이것이 처음 발생한 콘스탄츠 대학의 이름을 빌어 콘스탄츠 학파(The Constance School)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학파의 중요한 인물로는 한스 로버트 야우스(Hans Robert Jauss)와 볼프강 이저(Wolfgang Iser)가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을 했다.

독자 반응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야우스가 사용한 기대 지평(horizon of expectation, *Erwartungshorizont*)이라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야우스만의 발명품이 아니라 그 이전의 여러 학자들이 쓰던 용어를 그가 차용한 것이다. 이 말은 이미 칼 포퍼(Karl Popper)나 칼 만하임(Karl Manheim) 등이 야우스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이다. 고펠리치(E. H. Gombrich) 또한 포퍼의 영향을 받아 그가 쓴 『예술과 환상』(*Art and Illusion*, 1960)에서 기대 지평을 “정상으로부터의 이탈과 수정을 과장된 감수성으로 받아 들이는 정신 자세”(a mental set which registers deviations and modification from a norm with exaggerated sensitivity, qtd in Selden 322)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야우스가 즐겨 사용한 기대지평이란 용어는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그가 이 용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애용하던 용어이다. 야우스가 자신

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받은 학문 분야는 사회학이라기 보다는 현상학(phenomenology)과 해석학(hermeneutics) 등이다. 현상학으로부터의 영향은 에드문트 후설로부터, 그리고 해석학의 영향은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은 가다머(Gadamer)로부터 받았다. 야우스는 자신의 스승인 한스-게오르크 가다머(Hans-Georg Gadamer)가 사용한 지평(horizon)이란 용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가다머는 지평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 세상에 위치해 있음(situatedness)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우리의 시야는 필연적으로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우리의 제한되고 닫힌 시야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다머는 지평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는 자신이 쓴 『진리와 방법』(*Truth and Method*)에서 “지평은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Der Horizont ist vielmehr etwas, in das wir hineinwandern und das mit uns mitwandert, qtd in Seldem 322)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다머가 지평이란 용어에서 강조한 점은 이해란 과거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의 융합 과정(process of fusion, *Horizontverschmelzung*, qtd in Seldem 323)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같은 지평의 융합과정은 과거와 현재의 융합 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지평 융합 과정을 포함하는데, 이 경우 우리는 타자로서의 텍스트와 작가까지를 포함하는 지평 융합을 가정할 수 있다(Makaryk 553). 야우스는 자신이 사용하는 기대 지평이란 용어를 이디에서도 명확하게 정의한 바는 없다. 그러나 그가 가다머의 지평이라는 용어에 영향을 받아 기대 지평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유추할 수는 있다.

[기대 지평은] 주체 상호간에 일어나는 기대의 체계이거나 구조이며, 참조의 체계이거나 구조이다. [이는] 가상적인 개인[독자]이 하나의 주어진 텍스트를 읽는 정신상태이다. 모든 작품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기대 지평을 배경으로 하여 읽힌다.

[The horizon of expectation (*Erwartungshorizont*) is] an intersubjective system or

structure of expectations, a system of references, or a mind-set that a hypothetical individual brings to a given text. All works are read against some horizon of expectation. (Selden 323)

야우스는, 문학 비평가는 텍스트와 독자의 기대 지평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문학 텍스트의 예술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텍스트와 기대 지평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기대가 무너지지 않을 경우, 이를 시시한 작품(the culinary)이라고 본다. 반면에, 텍스트와 기대 지평 사이에 괴리가 심할 경우 이를 훌륭한 작품으로 본다(Selden 323). 따라서 훌륭한 작품이란 독자의 독서 행위가 언제나 가변적인 기대 지평을 형성함으로써 텍스트와 독자의 기대 지평 사이에 역동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문학 텍스트인 셈이다.

야우스가 기대 지평이란 용어로 문학 텍스트에 대한 독자들 사이의 동시적인 상호 작용을 보다 더 강조한 반면에, 이저(Iser)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공시적인 상호 작용에 의한 의미 생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같은 이저의 관심은 실제로 독자가 문학 텍스트를 읽으면서 어떻게 의미를 생산하는가 하는 데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같은 그의 관심은 함축된 독자(implied reader)라는 그의 용어에서 잘 드러난다. 함축된 독자는 독서 행위과정에서의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에 관심의 초점을 모은 용어이다. 따라서 함축된 독자는 단지 텍스트에만 종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단지 읽는 행위에 국한된 독자가 아니다. 함축된 독자는 텍스트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독서 행위를 하는 독자를 상정한 용어이다. 따라서 함축된 독자는 텍스트를 미리 구조화함으로써 의미의 생성을 허용하여 이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독서 과정을 통하여 잠재된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독자를 의미한다(Makaryk 562). 이러한 함축된 독자는 실제 독자이기보다는 하나의 구조물(a construct, Makaryk 373)로 존재하며, 이러한 독자는 의사소통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언어적인 약호와 문화적인 약호(the same linguistic and cultural code, Makaryk 373)를 공유하는 발신자와 수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의사 소통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indeterminacy)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특히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문자를 매개로 한 예술 작품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불확실성은 직선적인 의사 소통을 방해하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함축된 독자에게 있어 텍스트에 내재하는 이같은 불확실성은 의사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와의 능동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함축된 독자는 의사 소통이 용이한 텍스트보다 의사 소통이 어려운 텍스트를 선호함으로써 자신의 의미 생산 영역을 확장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의미 생산이 용이한 텍스트를 독서 가능한 텍스트(readerly text)라고 부르고, 의미 생산이 어려운 텍스트를 씌어지는 텍스트(writerly text)라고 부르는데, 후자의 경우가 이저가 말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텍스트가 되는 셈이다.

이저에 따르면 함축된 독자는 불확실성이 높은 텍스트를 대하면서 텍스트에 나타난 틈새(gap)와 공백(blanks)를 메꾸고 빈틈(vacancies)을 채울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나타난 피상적인 정보까지도 고도의 숙련된 읽기 과정에 의해 꿰뚫어 보는 독자인 셈이다. 오스틴이 훌륭한 작가로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고도로 세련된 읽기 전략을 요구하는 글쓰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일상사처럼 보이는 그녀의 소재를 소설에서 다루면서도 독자의 기대 지평을 언제나 넓혀 가기 때문에 그녀의 독자들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같은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뻔한 것 같이 보이는 이야기에 많은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을 심어 놓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오스틴이 『엠마』에서 어떤 글쓰기를 사용함으로써 그녀의 텍스트 속에 불확실성을 역동적으로 사용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3. 반전과 번복으로서의 오스틴의 글쓰기 전략

오스틴의 많은 소설에서 처음에 나오는 묘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만과 편견』의 처음에 나오는 화자의 서술도 그리하러니와 『엠마』의 처음

에 나오는 엠마에 대한 묘사 또한 그러하다. 이처럼 오스틴 소설의 처음에 나오는 묘사에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묘사가 우선적으로 독자의 기대 지평의 근거가 되지만, 이러한 기대 지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번복되고 수정되고 의심의 근거가 되어 후에 반전될 의미 생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처음에 나오는 엠마에 대한 묘사 역시 이같은 오스틴의 글쓰기 전략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름답고 영리하며 부유한 데다 안락한 가정이 있는 낙천적인 성격의 엠마 우드하우스는 삶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엠마는 별다른 걱정이나 고민 없이 행복하게 스물한 해를 살아 왔다.

Emma Woodhouse, handsome, clever, and rich, with a comfortable home and happy disposition, seemed to unite some of the best blessings of existence; and had lived nearly twenty-one years in the world with very little to distress or vex her. (1)

이 소설의 처음에 나오는 주인공 엠마의 이같은 성격 묘사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이 21세의 미혼 여성에 관한 얘기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사랑과 결혼에 연관된 이야기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녀는 아름답고 영리하며 부유하고 안락한 가정이 있는 낙천적인 성격이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다른 미혼 처녀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이 씌여진 19세기 영국의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여성에게 있어 결혼이란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행위이다. 그런데 엠마에 대한 이같은 묘사로 비추어 볼 때 엠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혼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같은 엠마의 처지는 오스틴이 쓴 또 다른 소설인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여주인공인 엘리자베스 베넷(Elizabeth Bennet)과도 큰 대조를 이룬다. 엘리자베스는 경제적인 형편이 엠마보다 못했으며, 또한 그녀의 어머니가 엘리자베스를 포함한 많은 딸들의 결혼에 발벗고 나섰다. 과년한 딸들을 둔 어머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자신의 딸들의 결혼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엠마의 경우에는 그녀에게 결혼을 재촉하거나 적극적으로 중매를 할 어머니조차 없다. 엠마를 양육하다시피 한 엠마의 가정 교사인 테일러는 사회적인 신분상 엠마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선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 더구나 테일러는 가정교사라기 보다는 엠마의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엠마에게 결혼을 재촉하거나 채근할 위치에 있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이같은 엠마의 처지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완전한 자족감(自足感)을 주는 것은 아님을 오스틴은 곧 이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로써 엠마에 대한 우리의 기대 지평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엠마가 가진 진정한 단점이라면 그녀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다소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엠마의 많은 즐거움을 망칠 소지를 안고 있는 약점들이었다. 그러나 그 단점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엠마의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다.

The real evils indeed of Emma's situation were the power of having rather too much her own way, and a disposition to think a little too well of herself; these were disadvantages which threatened alloy to her many enjoyments. The danger, however, was at present so unperceived, that they did not by any means rank as misfortunes with her. (1)

이처럼 이 소설은 독자가 기대 지평을 설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전제를 제공함으로써 시작된다. 오스틴의 글쓰기 전략은 이처럼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대 지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아울러 이러한 기대 지평이 후에 전복될 수 있게 하는 실마리(clues)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같은 오스틴의 글쓰기 전략은 그녀의 대부분의 소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각각의 소설에는 그녀의 이러한 글쓰기 전략이 변주되어 나타난다.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오스틴의 이러한 글쓰기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제인 오스틴은 겉으로 보기보다는 훨씬 깊은 정감을 가진 여성 작가이다. 그녀는 [독자로 하여금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내도록 부추긴다. 그녀가 소설에서 묘사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보이지 않는 것이 독자의 마음을 넓혀 준다. 표면적으로는 사소한 장면감이 보이는 것들이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게 만든다. 작중 인물이 언제나 강조된다. [중략]. 대화의 반전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Jane Austen is thus a mistress of much deeper emotion than appears upon the surface. She stimulates us to supply what is not there. What she offers is, apparently, a trifle, yet is composed of something that expands in the reader's mind and endows with the most enduring form of life scenes which are outwardly trivial. Always the stress is laid upon characters. . . . The turns and twists of the dialogue keep us on the tenterhooks of suspense. Our attention is half upon the present moment, half upon the future. (qtd in Iser[1980] 168)

이것이 바로 오스틴의 글쓰기 전략의 핵심이며, 그녀 자신의 이런 글쓰기 전략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대단한 문학적 성취이다. 오스틴 자신이 토로한 바 있듯이 이러한 그녀의 글쓰기 전략은 대단히 거대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기 보다는 “시골 마을의 서너 니덧 가정 이야기가 바로 풀어 나가야 할 구도이다”(3 or 4 Families in a Country Village is the very thing to work on, Austen vii). 그리고 이러한 구도에서 구애와 결혼은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이야기는 대개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난다. 그런데 오스틴은 이러한 자신의 각기 다른 소설에서 매번 다른 주인공을 등장시키면서도 이러한 구도를 성공시키고 있다. 오스틴의 다른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들과는 달리 엠마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해야 할 필요는 없다. 19세기 영국에서 여성이 결혼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안정의 추구라면 엠마는 이미 이런 필요로부터 자유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스틴은 이 소설에서는 결혼이 경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행해지는가라는 주제를 친착하고 있다. 이같은 주제를 엠마는 처음으로 헤리엇 스미스(Harriet Smith)와의 대화에서 드러내고 있다.

나는 보통 이자들이 느끼는 결혼에 대한 유혹을 안 느껴. 내가 사랑에 빠진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난 한 번도 사랑에 빠져 본 적이 없어. 그건 내 식이 아니고 내 성격에 맞지도 않아. 그런데 난 아마 절대 사랑에 안 빠질거야. 사랑 없이 내가 왜 내 생활환경을 바꾸겠니? 바보 아닌 이상. 재산도 직업도 사회적 지위도 난 원하지 않아. 아마 어떤 결혼한 여자도 내가 하트필드에서 차지하는 여주인으로서의 중요성의 반도 못 누릴거야. 누가 우리 아버지만큼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주고 지극히 사랑해 주겠니?

I have none of the usual inducements of women to marry. Were I to fall in love, indeed, it would be a different thing! but I never have been in love; it is not my way, or my nature; and I do not think I ever shall. And, without love, I am sure I should be a fool to change such a situation as mine. Fortune I do not want; employment I do not want; consequence I do not want: I believe few married women are half as much mistress of their husband's house, as I am of Hartfield; and never, never could I expect to be so truly beloved and important; so always, first and always right in any man's eyes as I am in my father's. (55)

이같은 엠마의 말에서 그녀의 성격을 생각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예견해 주는 몇 가지의 힌트를 읽을 수 있다. 우선 그녀는 독선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치하기까지 하다. 그녀는 지금까지 결코 사랑에 빠져 본 적이 없으며 또한 앞으로도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용법(never, ever)을 써 가면서 강조한다. 만약 그녀의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소설은 여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이후로도 몇 백 쪽이나 더 계속되는 것을 보면 이같은 그녀의 단언은 번복되고 수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에 틀림없다. 세상에서 강한 부정이 끝까지 유효한 경우는 대단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같은 그녀의 가정이 대단히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은 그녀가 한 몇 가지 말에서 나타난다. 그녀가 지금까지 결코 사랑에 빠진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앞으로 사랑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것이라면, 그녀는 운명적인 사랑(*amor fati*)이라는 말이나 개념을 아직 알고 있지 못할 뿐이다. 그녀는 더군다나 남편과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동

렬(同列)에 놓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그녀가 소녀티를 벗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엠마의 가장 중요한 실수는 여자의 결혼이 단지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가능하다는 독선적인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여성이 결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경제적인 이유이기 는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은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애정이라든가 인생관 또는 인간적인 유대 등의 다른 중요한 이유에 연유한다. 오스틴이 살던 시대에는 물론 그런 이유를 들지는 못했겠지만 성적(性的)인 요인도 결혼의 아주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엄두에 둔다면 엠마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대단히 신빙성이 약하다. 해리엇과의 이어지는 대화에서 엠마는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면 결혼할 필요가 없음을 힘주어 강조한다.

난 썬찮을 기야. 해리엇. 난 가난한 노치너는 안될 기니까 걱정마. 독신 생활이 혐오감을 주는 것은 가난 때문이야! 쥐꼬리만한 수입을 가진 독신 여자는 우스꽝스럽고 흉하지.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 딱 알맞지. 일정한 수입을 가진 독신 여성은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존경받을 수 있고 호감을 줄 수 있지.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별 상관없이 적은 수입은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쳐서 성격을 비뚤어지게 하지. 간신히 살아가거나 적은 사고 범위의 열등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녀는 심중팔구 자유스러운 성격도 못되고 비뚤어지기 쉽지.

Never mind, Harriet, I shall not be a poor old maid; and it is poverty only which makes celibacy contemptible to a generous public! A single woman, with a very narrow income, must be a ridiculous, disagreeable, old maid! the proper sport of boys and girls; but a single woman, of good fortune, is always respectable, and may be as sensible and pleasant as anybody else. And the distinction is not quite so much against the candour and common sense of the world as appears at first; for a very narrow income has a tendency to contract the mind, and sour the temper. Those who can barely live, and who live perforce in a very small, and generally very inferior, society, may well be illiberal and cross. (55-56)

그렇다면 엠마는 결혼해야 할만한 경제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생을 결

혼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같은 우리의 의구심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나는 항상 적극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내가 왜 21살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40대 50대 되어서 할 일이 없겠어? 지금과 같은 시력, 능력과 활기를 그때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림을 적게 그리다면 책을 더 많이 읽겠지. 음악을 포기한다면 카페트를 짜겠지. 관심과 애정의 대상인 자식들이 없다는 것이 비혼일 경우에 가장 아쉬운 것이지. 비혼일 경우에도 이런 아쉬운 점은 보충해야지. 나는 우리 언니의 아이들과 충분히 행복할 거야. 나의 저물어 가는 인생을 운명하게 해줄 모든 기쁨을 충분히 가질 거야. 부모보다 더 따뜻하고 맹목적인 사랑을 쏟을 수는 없겠지만 나한테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할 수 있지. 내 사랑스러운 조카들! 내 조카들은 자주 날 보러 올 거야.

If I know myself, Harriet, mine is an active, busy mind, with a great many independent resources; and I do not perceive why I should be more in want of employment at forty or fifty than one-and-twenty. Woman's usual occupations of eye and hand and mind will be open to me then, as they are now; or with no important variation. If I draw less, I shall read more; if I give up music, I shall take to carpet-work. And as for objects of interest, objects for the affections, which is in truth the great point of inferiority, the want of which is really the great evil to be avoided in *not* marrying, I shall be very well off, with all the children of a sister I love so much, to care about. There will be enough of them, in all probability, to supply every sort of sensation that declining life can need. There will be enough for every hope and every fear; and though my attachment to none can equal that of a parent, it suits my ideas of comfort better than what is warmer and blinder. My nephews and nieces!—I shall often have a niece with me. (56)

이같은 그녀의 생각은 아주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여 자식을 키우지도 않았으면서도 이들로부터 위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고 노처녀로 늙었을 때 어느 조카가 그녀가 젊었을 때처럼 기쁨과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인가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엠마가 오지랴 넓게 조카들의 일에 이

것 저것 간섭한다면, 그녀는 어떤 조카로부터도 즐거움을 얻기는커녕 이들의 따돌림을 받아 기피 대상이 되기가 십상이다. 그녀의 결혼에 대한 생각과 노후에 대한 배려가 실제적이지 못하여 우리의 기대 지평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녀의 생각을 의심하게 하고 지평을 수정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 지평을 항상 변경하고 수정하면서 반전과 번복 속에 이 소설을 읽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우리의 기대 지평의 변화를 1장에서 15장까지에서 보기로 하자. 여기서 엠마는 엘튼과 해리엇이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엠마의 생각이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엘튼이 해리엇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엠마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리의 의구심은 16장에 가서 엘튼과 엠마 둘만이 바차를 타고 가는 중에 엘튼이 엠마에게 칭찬하는 장면에서 우리의 의구심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다.

엠마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18장에서 30장까지에서 엠마는 그녀와 프랭크 처칠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이같은 생각은 그녀가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던 공언을 뒤집는 것일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르다. 엠마는 또한 제인 패어팩스와 덕슨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좀더 꼼꼼히 생각해 보고 나서 엠마는 자신이 처칠을 멀리 해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같은 엠마의 결론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프랭크 처칠과 패어팩스 사이에 애정의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3부 5장(41장)에서 나이틀리(Knightley)가 처칠과 패어팩스 사이에 “애정의 증후”(symptoms of attachment, 229)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잘 알 수 있다.

최근에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표정들을 보고 애정의 증후가 있는 것을 알고 둘 사이에는 남이 모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 왔지.

I have lately imagined that I saw symptoms of attachment between them certain expressive looks, which I did not believe meant to be public. (229)

그렇다면 프랭크 처칠은 엠나, 해리엇, 그리고 제인 패어팩스라는 세 여인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겉으로 보면 처칠은 엠나에게 마음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엠나는 그가 해리엇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처칠은 실제로는 나이틀리가 의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인 패어팩스에게 마음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독자는 자신의 기대 지평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독자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텍스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면서 텍스트에 있는 피리와 공백을 매꿔 나간다. 독자가 이처럼 능동적으로 자신의 기대 지평을 수정하고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저가 말하는 "친숙함의 부정"(negation of the familiar, "Reading Process" 64)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만 한다. 이저는 이러한 친숙함의 부정이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학 텍스트의 효과는 친숙성을 환기시킨 다음 그것이 끝이어서 부정됨으로써 성취된다. 언뜻 보아 처음에는 우리의 가정을 확인시키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곧 가정의 반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방향을 새롭게 잡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친숙함에 안주하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학 텍스트가 독자로 하여금 환상을 형성하면서 이러한 환상을 깨뜨리는 수단의 형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독서는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과정을 반영한다. 독자가 독서 행위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는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계속해서 파괴한다. 이렇게 되면 텍스트는 독자의 <현재>가 되며, 그가 가졌던 생각들은 <과거> 속으로 사라진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독자는 텍스트의 현재의 경험에 열리게 된다. 그러나 독자가 자신의 선입견을 자신의 <현재>로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The efficacy of a literary text is brought about by the apparent evocation and subsequent negation of the familiar. What at first seemed to be an affirmation of our assumptions leads to our own rejection of them, thus tending to prepare us for a re-orientation. And it is only when we have outstripped our preconceptions and left the

shelter of the familiar that we are in a position to gather new experiences. As the literary text involves the reader in the formation of illusion and the simultaneous formation of the means whereby the illusion is punctured, reading reflects the process by which we gain experience. Once the reader is entangled, his own preconceptions are continually overtaken, so that the text becomes his "present" while his own ideas fade into the "past"; as soon as this happens he is open to the immediate experience of the text, which was impossible so long as his preoccupations were his "present." ("Reading Process" 64)

오스틴이 그녀의 자신의 텍스트를 통해 독자를 끊임없이 진숙함의 부정 과정으로 이끈다는 사실은 그녀가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녀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가변적이고 변화 무쌍하게 만들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대 지평을 끊임없이 수정하게 한다. 이같은 그녀의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찰이 그녀로 하여금 제한된 소재와 낮은 인물들을 가지고도 언제나 새롭게 읽히는 글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관건인 셈이다.

이러한 진숙함의 부정은 이 소설 읽기에서는 서로 다른 등장 인물 간의 상호 관계가 불리 일으키는 역동성과 더불어 독자가 이를 자신의 새로운 경험으로 만들려고 하는 능동적 자세에 기여한다. 엠마는 자신의 불완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같은 그녀의 결정이 단호하면 할수록 반복의 가능성이 더 높으며, 또한 신빙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같은 그녀의 성격으로 인하여 독자인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녀의 판단에 아이러니를 느끼는 수가 많다. 이같은 예는 그녀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 내린 결론에서 두드러진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하지 않을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한다.

나는 지금 현재 결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은 거의 없어.

And I am not only, not going to be married, at present, but have very little intention of ever marryig at all. (55)

그러나 이같은 엠마의 단호함은 얼마 가지 않아 오스틴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 의해 무너지고 만다.

절대 결혼 안하리라고 결심한 엠마였지만 프랭크 치칠이라는 이름 어린가가 항상 그녀의 흥미를 끌었다. 특히 그의 아버지가 네일리 양과 결혼한 이후 그녀가 결혼한다면 나이나 성격, 조건으로 봐서 그가 상대라고 종종 생각해 왔다. 가족들 간의 관계로 봐서 그야말로 그녀의 상대라고 생각되었다. 그 결합이야말로 모두가 긍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웨스턴 씨 부부가 그 결합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엠마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미 다른 누구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편한 조건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녀였지만, 그를 만나면 어느 정도까지 좋아하기 위해 노력해보고, 다른 친구들이 돌을 짚지어 놓고 행복해 하는 기쁨을 주지는 생각이 떠올랐다.

Now it so happened that in spite of Emma's resolution of never marrying, there was something in the name, in the idea of Mr. Frank Churchill, which always interested her. She had frequently thought—especially since his father's marriage with Miss Taylor—that if she *were* to marry, he was the very person to suit her in age, character and condition. He seemed by this connection between the families quite to belong to her. She could not but suppose it to be a match that every body who knew them must think of. That Mr. and Mrs. Weston did think of it, she was very strongly persuaded; and though not meaning to be induced by him, or by any body else, to give up a situation which she believed more replete with good than any she could change it for, she had a great curiosity to see him, a decided intention of finding him pleasant, of being liked by him to a certain degree, and a sort of pleasure in the idea of their being coupled in their friends' imagination. (77-78)

이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엠마가 말하는 것과 전지전능의 시점을 가진 소설가로서의 오스틴의 설명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 그렇다면 독자는 엠마와 오스틴 중 오스틴의 의견에 무게를 두게 되며, 엠마는 세상 물정에 어둡고 경험이 부족한 인물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엠마의 이같은 단점을 알고 있는 독자는 그녀가 왜 해리엇의 중매에 적극적이기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매릴린 버틀러(Marilyn Butler)

는 엠마가 해리엇의 중매에 일성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젊은 여성이 자신 스스로 남편감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엠마는 체면 차릴 필요 없이 해리엇의 남편감을 찾아 발벗고 나섰다.

Social taboos would have prevented any young woman from taking so commanding a role in pursuing a man for herself. But Emma is unhampered by propriety when she takes the initiative in choosing a husband for Harriet. (386)

물론 해리엇 자신이 자신의 남편감을 스스로 찾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연습으로 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버틀러의 주장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은 받고 있던 19세기 여성에게 있어 자신의 남편감을 적극적으로 구하려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버틀러의 생각은 행동을 단지 피상적으로 관찰한 후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 엠마가 해리엇의 중매에 이처럼 열정을 쏟는 원인은 그녀의 심리 깊숙한 곳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

해리엇이 엠마의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녀가 엠마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해리엇은 미모이긴 하지만 푹푹한 편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엠마는 그녀를 만만한 상대로 생각하여 그녀 대신에 남편감을 대신 찾아 나선 것이다. 더구나 엠마는 자신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심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그녀가 해리엇의 중매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해도 아무도 그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합법적인 명분을 가지고 엠마가 해리엇의 중매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만, 사실은 해리엇의 중매는 엠마에게 있어서는 “그녀 자신의 남편감을 찾는 대리적인 방법”(a vicarious way of exploring the idea of a suitable partnership for the self, Kurrik 85)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엠마가 해리엇의 남편감으로 생각한 사람은 부복사인 엘튼(Mr. Elton)이다. 엠마는 해리엇과 엘튼의 결합을 위해 해리엇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최선을 다

한다. 나이틀리의 소작인인 로버트 마틴(Robert Martin)이 헤리엇에게 청혼하자 엠마가 헤리엇에게 이를 거절하도록 유도한 것은, 헤리엇과 엘튼의 결합을 위한 엠마의 복안에 따른 것이다. 엠마가 헤리엇으로 하여금 마틴의 청혼을 거절하게 한 것은 그의 재산 정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엠마의 생각은 그녀 자신을 헤리엇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타당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와 헤리엇을 별개의 독립된 개체로 볼 경우 이 둘은 아주 이상적인 배필감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엠마는 자신과 헤리엇을 동일시함으로써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여 일을 그르치고 만다. 이는 헤리엇의 결혼을 엠마 자신의 대리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오산이다. 한편 엠마가 엘튼과 헤리엇의 중매에 열성적인을 알고 있는 나이틀리는 헤리엇과 마틴이 썩 잘 어울리는 상대라고 생각하면서, 엠마가 헤리엇으로 하여금 마틴의 청혼을 거절하게 한 것을 비판한다. 나이틀리의 생각으로는 헤리엇이 재산이 많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에 엘튼이 결코 헤리엇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엠마에게 말한다. 이같은 의견 차이로 인해 엠마와 나이틀리는 서로 다투게 된다.

엠마는 나이틀리의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엘튼이 헤리엇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엠마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엘튼이 자주 엠마를 방문할 뿐만 아니라, 엠마가 들려 주는 헤리엇의 이야기에 엘튼이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엠마가 나이틀리와 화해한 후 이 둘은 웨스턴 씨 집에서 파티가 있기로 된 날 같이 가게 된다. 여기서 나이틀리는 엘튼이 헤리엇에게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엠마 자신에게 관심이 있음을 귀뜸해 준다. 나이틀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엠마가 엘튼에게 친절하기 때문에 엘튼은 이같은 엠마의 친절한 행동을 보고 그녀가 엘튼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여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같은 나이틀리의 말에 엠마는 펄쩍 뛰면서 나이틀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엠마의 눈에는 엘튼이 우스꽝스럽고 거만한 인물로 보인다고 엠마는 나이틀리에게 말한다.

눈 때문에 웨스턴 씨 집에서의 파티가 일찍 파하게 되어 귀가하는 길에 엠마는 엘튼과 단 둘이서 같은 마차를 타게 된다. 엘튼은 이것이 좋은 기회라

고 생각하여 엠마에게 사랑 고백을 한다. 이에 엠마는 크게 놀라 그에게 실망하게 된다. 엠마가 엘튼의 애정 고백을 뿌리치자 엘튼은 그녀가 이제껏 그를 진절하게 대해 왔기 때문에 그녀가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다. 이같은 경험을 통해 엠마는 자신의 이제까지의 중매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아주 큰 모욕감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남의 중매장이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이같은 그녀의 경험은 그녀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만 상황 판단을 해왔음을 보여 주는 아주 좋은 예이다. 그녀의 이같은 피상적인 판단 행위는 독자가 그녀와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괴리를 보면서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 능력을 높이게 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독자는 자신의 기대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엠마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결혼 상대는 결국 두 명으로 압축된다. 그 하나는 프랭크 처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이틀리이다. 처칠은 엠마에게 많은 관심과 호의를 보인다. 이같은 처칠의 관심에 엠마 또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처칠이 엠마에게 보이는 애정과 호의는 진정한 애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제인 패어팩스 사이에 존재하는 비밀 약혼을 숨기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처칠은 이 소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제인과 비밀로 약혼한 사이인데, 이같은 약혼은 그를 키워준 처칠 씨 내외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들은 이를 비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엠마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자신과 처칠은 여러 모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처칠이 제인과의 비밀 약혼을 숨기기 위한 위장술의 하나로 엠마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는 것은 처칠이 정직한 인물이 아님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처칠의 이같은 부정직성에 비하여 나이틀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인물이다. 나이틀리는 “정직하며 사심 없는 통찰력과 관심”(honest, disinterested insight and concern, Gillie 146)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언제나 공정정대하며 엠마에게 사심없이 충고하고, 그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녀에게 충고하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이같은 나이틀리의 인물 됴됨이는 오스틴이 존경하던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의 성격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길리(Gillie)는 주장한다(146).

엘튼과 해리엇의 결혼이 실패로 끝난 후, 댄스 파티에서 엘튼이 그녀와 춤추기를 공개적으로 거절한다. 이같은 엘튼의 행동에 해리엇은 대단히 상심한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해리엇은 엠마에게 자기는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털어 놓는다. 이 말을 들은 엠마는 해리엇이 좋아하게 된 남자가 프랭크 처칠일 거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해리엇이 좋아하게 된 남자는 해리엇이 엘튼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춤추기를 거부당할 때 그녀와 춤추기를 청한 나이틀리이다. 그러나 엠마는 그 남자가 나이틀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생각한다. 엠마와 해리엇 사이의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우리는 해리엇이 나이틀리를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엿볼 수 있다.

“내겐 전혀 놀랄 일이 아니야, 해리엇. 그 분이 너에게 베푼 호의는 네 마음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했겠지.”

“호의라고요! 그것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친절이었어요! 그 분이 그런 멋진 모습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던 저에게 다가 오시는 것을 봤을 때 저의 감정은 생각만 해도 그것은 커다란 변화였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치절한 불행에서 완전한 행복으로요!”

“I am not at all surprised at you, Harriet. The service he rendered you was enough to warm your heart.”

“Service! oh! it was such an inexpressible obligation! The very recollection of it, and all that I felt at the time, when I saw him coming his noble look, and my wretchedness before. Such a change! In one moment such a change! From perfect misery to perfect happiness!” (223)

이러한 해리엇의 나이틀리에 대한 감정과 그에 대한 묘사를 읽고 독자는 그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해리엇과 엠마와 나이틀리의 삼각관계를 시험해 보는 계기가 된다. 해리엇과 엠마는 결국 나이틀리 한 사람을 서로 사랑한 셈이다. 두 여인의 이같은 나이틀리에 대한 감정은 이 둘의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 둘 사이의 대화는 엠마가 처음에 결혼하지 않겠다는 공언이 완전히 반전되었음을 보여준다.

해리엇은 창문 앞에 서 있었고 엠마는 그녀를 보기 위해 몸을 돌린 후 남하게 말을 시작했다.

“나이틀리 씨도 나를 좋아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혹시라도 아니?”

“네”라고 해리엇이 겸손하게, 그러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대답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엠마는 눈길을 떨구고는 조용히 앉아서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겼다. 단지 몇 분간의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번 의심이 풀리자 그 다음부터는 급속하게 생각이 발전해 나갔다.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다. 왜 해리엇이 프랭크와 사랑에 빠진 것과는 다르게 나이틀리 씨를 좋아하는 것이 더 나쁘게 생각되는지? 왜 해리엇이 나이틀리 씨한테서 사랑의 화답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자신의 가슴을 찌르며 괴롭히는지? 화살처럼 날아드는 생각은 바로 나이틀리 씨는 자기 말고는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자신이 누우치고 있는 심정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과거의 행동들이 하나 하나 떠올랐다. 얼마나 부적절하게 행동해 왔는가! 얼마나 생각없이 예외범절없이 불합리하고 부정하게 행동해 왔는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듯 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니 겁이 났다. 자신이 한 행동들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라는 느낌이 각자기 들었다.

Harriet was standing at one of the windows. Emma turned round to look at her in consternation, and hastily said:

“Have you any idea of Mr. Knightley's returning your affection?”

“Yes,” replied Harriet modestly, but not fearfully; “I must say that I have.”

Emma's eyes were instantly withdrawn; and she sat silently meditating, in a fixed attitude for a few minutes. A few minutes were sufficient for making her acquainted with her own heart. A mind like hers, once opening to suspicion, made rapid progress. She touched—she admitted—she acknowledged the whole truth. Why was it so much worse that Harriet should be in love with Mr. Knightley, than with Frank Churchill? Why was the evil so dreadfully increased by Harriet's having some hope of a return? It darted through her, with the speed of an arrow, that Mr. Knightley must marry no one but herself!

Her own conduct, as well as her own heart, was before her in the same few minutes. She saw it all with a clearness which had never blessed her before. How improperly had she been acting by Harriet! How inconsiderate, how indelicate, how irrational, how unfeeling had been her conduct! What blindness, what madness, had led her on! It struck her with dreadful force, and she was ready to give it every bad name in the world. (267)

드디어 엠마는 자신이 해리엇을 대신해서 중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이틀리와 결혼해야 할 유일한 인물임을 직감한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기로 공언한 것이 그녀의 무지(blindness)와 경험 부족에 근거한 경거 망동이었다면, 엠마는 이제 비싼 수업료를 낸 후에야 비로소 나이틀리를 어느 다른 여자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낀다. 나이틀리는 엠마에게 훌륭한 남자일 뿐만 아니라 그 없이는 삶의 의욕까지도 느끼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녀는 가슴 속에 느끼게 된다.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는 공언이 대단히 공허하게 들렸다면, 그녀가 나이틀리와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우리를 안심시킨다.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대 지평을 수정해 왔을뿐만 아니라, 이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시야를 수정하고 보완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가 미숙한 상태에서 단호하고 결연하게 미혼으로 살 것을 선언한 것은 우리의 기대 지평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근거가 됐다. 그 뒤로 많은 우여 곡절, 반전, 그리고 역전을 거친 후 우리는 엠마의 행동을 되돌아 보면서 이같은 우리 기대 지평의 능동적인 수정과 변경이 바로 오스틴의 글쓰기 전략이 독자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읽기 방법임을 알게 된다. 그녀의 글쓰기 전략은 단지 수동적인 텍스트 소비자로 머물게 하기보다는 그녀의 소설 텍스트와 능동적으로 상호 작용하게 함으로써 독자인 우리도 또 다른 텍스트 생산자가 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인용한 자료

Austen, Jane. *Emma: An Authoritative Text, Backgrounds, Reviews and Criticism*.

3rd ed. Ed. Steven M. Parrish. New York: Norton, 2000.

Butler, Marilyn. "Emma." In Austen, 385-396.

Gillie, Christopher. *A Preface to Jane Austen*. London: Longman, 1992.

Iser, Wolfgang. "The Reading Proces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Tompkins, 50-69.

- Iser Wolfgang. *The Act of Reading: A Theory of Aesthetic Response*. Baltimore, MD: Johns Hopkins UP, 1980.
- Kurrik, Marie Jaanus. *Literature and Negation*. New York: Columbia UP, 1979.
- Makaryk, Irena R., ed.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Toronto: U of Toronto P, 1993.
- Selden, Raman. *The Cambridge History of Literary Criticism*. Vol. 8. *From Formalism to Poststructuralism*. Cambridge, UK: Cambridge UP, 1995.
- Tompkins, Jane P., ed. *Reader-Response Criticism: From Formalism to Poststructuralism*. Baltimore, MD: Johns Hopkins UP, 1980.

《ABSTRACT》

Jane Austen's Writing Strategy in *Emma*

Chong-Ho Lee

Jane Austen has been considered to be a very skillful novelist in spite of the fact that her novels are mainly concerned about one theme: courtship process. This seems to have been a great enigma to many critics. When we examine her writing strategy in *Emma*, we come to realize how complicated her writing strategy is. Even though she deals with a very simple theme of courtship in this novel, she pushes the reader always on the edge, forcing her to readjust her horizon of expectations. This is the secret of Austen's writing.

Emma starts out looking for a husband for Harriet, but she herself ends up getting married to Nightley. Emma at first publicly announces that she would never marry, but at the end of the novel she realizes that Nightley is just the man for herself, not Harriet. The reader, therefore, has to adjust her horizon of expectations to realize what has been going on in her mind. In Austen's novels seemingly trivial hints all add up on which the reader bases her own decis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reader of Austen's novels always has to be alert to the most trivial-looking hints dropped along the way. She has to constantly adjust her horizon of expectations.